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중기원 방문 장기비전 제시

AI·車전장 분야, 선행기술력·오픈이노베이션 주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AI 부문 전사적 역량 결집 구체화
스타트업 투자·삼성 AI포럼 개최
오너 장기비전 등 총수행보 본격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삼성중합기술원에서 '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성장동력 사업의 연구진행 현황과 추진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연구개발(R&D)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중합기술원을 방문한 것은 그룹 장기 비전을 제시해 새로운 총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세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0일 중합

기술원을 찾아 회의를 진행하면서 인공지능(AI)과 자동차 전장 사업 등 미래 먹거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합기술원은 1987년 미래 준비를 위한 기초 연구와 핵심 원천기술 선행 개발을 위해 문을 열었다. 현재 15개 연구실에서 1100여명 연구원이 차세대 컴퓨팅 기술, AI, 혁신 소재 및 신물질, 자율 주행 및 전장 부품, 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 부회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도전적인 선행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계적 수준 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내부 인재를 육성하는 동시에 오픈 이노베

이션을 추진함으로써 외부와의 교류·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의 이번 행보는 최근 삼성전자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AI 부문 투자 및 인재 확보 노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TV와 스마트폰,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삼성전자의 새로운 주력으로 4차 산업혁명 대표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을 전사적 역량으로 결집한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한국 AI 총괄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영국 케임브리지, 캐나다 토론토, 러시아 모스크바에 이어 최근 미국 뉴욕에 글로벌 AI 연구센터를 개소했으며, 국내외에서 AI 관련 스타트업에

도 잇따라 투자하고 있다. 12일부터 이틀간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삼성 AI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성공 방정식의 두 핵심 요소인 '오너의 장기비전'과 '전문경영인의 실행력'이라는 조합을 재가동함으로써 총수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삼성중합 기술원 방문은 단순한 경영 행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리더십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13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8 광주 에이스페어가 열려 참석 인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 에이스페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콘텐츠 종합전시회로 올해는 32개국 400개 기업이 600개 부스를 운영한다. /연합뉴스

“위기의 케이블TV, 지역 콘텐츠로 혁신을”

한국케이블TV협회 '혁신 세미나'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가 글로벌적으로 성공하듯 가장 지역성이 뚜렷한 콘텐츠들이 지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3일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의 방송 문화 콘텐츠 전시회인 '2018 광주 ACE 페어'에서 지역 미디어의 역할 모색에 대한 성토의 장이 열렸다.

이날 한국케이블TV협회는 분권시대 지역 미디어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케이블TV혁신 세미나'를 열었다.

지역 사회 발전과 미디어 역할을 주제로 연단에 선 고삼석 상임위원은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국내에 상륙하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콘텐츠'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케이블TV는 생활밀착형 지역 정보 등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를 통해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위기일수록 지역 방송단계 경쟁해야 한다”며 “지역 방송 혁신 성장은 장르를 불문하고 지역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역민, 지역문화로 더 깊게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진 세션 발표에서도 지역 방송에 대한 혁신과 역할에 대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류한호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세션 발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케이블TV 지역채널 간 상호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성이 가장 강한 케이블TV가 재난 방송, 선거방송, 지역경제와 문화 발전에 밀착해 다가가 지역의 자존감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류 교수는 이를 위해 방송법에 케이블

TV를 포함하고 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민참여와 지역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미디어센터 설립도 케이블TV의 지역성 강화를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이웃국가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최대 케이블방송사업자 주피터텔레콤(J:COM)의 타카히라 후토시 지역미디어본부장이, 중국에서는 칭화대의 송청위 국가문화산업연구센터장이 '일본·중국 지역미디어가 만들어낸 지역 성장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장원 정책홍보팀장이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통한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LH공사 김영춘 차장이 '4차 산업시대 지역특화 스마트시티 전략'을 소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케이블TV와 스마트시티 비즈니스의 연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2부 주제로 '케이블TV, 빅데이터로 서비스 체인업'을 논의한다.

'빅데이터 관점에서 본 케이블TV 혁신 방안'을 주제로 총 3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출범 23년을 맞이한 케이블 산업이 쌓아온 데이터의 가치를 확인하고, 실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다.

우선 제 1세션은 CJ헬로 신성철 팀장이 '케이블 데이터 마케팅 활용 방안'을 발제한다. 제 2세션은 닐슨컴퍼니코리아 황성연 박사가 '시청률의 확장과 변신: 새로운 유료방송 편성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 3세션은 다음소프트 유상우 이사가 '빅데이터로 본다: 온라인 화제성 지수 활용법'을 소개한다.

/광주=김나인 기자 silkni@

배터리서 접착제까지 LG화학, 車포트폴리오 강화

2023년까지 연간 약 8% 성장 전망
전기차 배터리·양극재 성장도 꾸준

LG화학이 자동차 소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양극재에 이어 자동차용 접착제까지 직접 생산하는 등 자동차 포트폴리오 강화에 적극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화학은 자동차용 접착제 전문 업체인 미국 유니실의 지분 100%를 유니실 모회사인 쿨엔터 프라이즈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동차용 접착제는 차체를 조립할 때 기존 나사나 용접이 하는 기능을 보완·대체해 차량 경량화에 기여하는 제품이다. 전세계 자동차용 접착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5조1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오는 2020년에는 6조5000억원, 2023년에는 8조4000억원까지 연간 약 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유니실 인수로 자동차용 접착제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며 “자사의 원재료 기술력을 더해 ‘고기능 접착 재료’ 분야도 사업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이번 유니실 인수를 통해 또 하나의 자동차 소재 사업을 추가하며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은 “자동차용 접



충북 청주에 위치한 LG화학 오창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모습. /LG화학

착제는 차량 경량화 추세로 성장세가 높은 유망 소재사업”이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LG화학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완성차업체 빈패스트사와 향후 전기차, 전기버스, 전기스쿠터 등 다양한 제품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 LG화학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및 핵심 원재료인 '양극재'도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은 중국 난징에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결정, 2019년 10월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총 투자금액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시설 공장에서는 전력저장장치(ESS)

용 배터리와 소형 전지도 함께 생산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LG화학이 2023년까지 생산량을 점차 늘려 연간 32GWh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차 50만 대에 들어가는 수준이다. 지난해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4.7GWh)보다 여섯 배 이상 많은 규모다.

공장에는 16개 전기차 배터리 라인, 3개 ESS 배터리 라인, 4개 소형 전지 라인 등 총 23개 생산 라인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현대차투자증권 강동진 애널리스트는 “LG화학은 그간 적자사업부였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향후 흑자로 전환하면서 명실공히 세계 최고 전기차 배터리 셀 사업자로 각광받게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유진 기자 ujinn632@

애플, 아이폰XS·XS맥스·XR 발표 더 커지고 빨라지고 비싸졌다



애플 수석 부사장 필 실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쿠퍼티노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열린 애플 행사에서 아이폰 XS와 XS맥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애플이 12일(현지시간) 신형 아이폰 라인업인 XS, XS맥스와 XR을 발표했다. 이날 미국 쿠퍼티노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팀 쿡 애플 CEO가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통해 신형 아이폰 3종을 소개했다.

새로운 아이폰은 각각 ▲XS ▲XS맥스 ▲XR란 이름으로 기존 방식과 다르게 명명됐다. 세 제품은 모두 크기가 늘어난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으며 기존 아이폰X(텐)에 있는 상단 노치 디자인을 유지했다.

우선 기존 아이폰X을 잇는 제품인 XS는 5.8인치 2436×1125 해상도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를 탑

재했다. 아이폰X플러스를 잇는 제품인 XS맥스는 6.5인치 2688×1242 해상도 AMOLED 디스플레이를 내장했다.

주요 연산을 위한 칩인 A12 바이오닉은 7나노 공정으로 만들었으며 690억개 트랜지스터가 담겼다. 아이폰 X과 동일하게 페이스 ID(안면인식) 기능이 있고 뉴로 네트워크를 이용해 빠르고 암호화된 보안기능을 제공한다.

판매가격은 미국에서 XS는 999달러(약113만 원), XS맥스는 1099달러(약124만 원), XR은 749달러(85만원)부터 시작된다. /안병도 기자